

## 삼일교회 4대 지향점

- |                              |                                |
|------------------------------|--------------------------------|
| 1. Making Disciples          |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
| 2. Preparing Next-generation | 청년세대를 일으키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
| 3. Mission Work              | 선교와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
| 4. Serving Neighborhood      | 섬김과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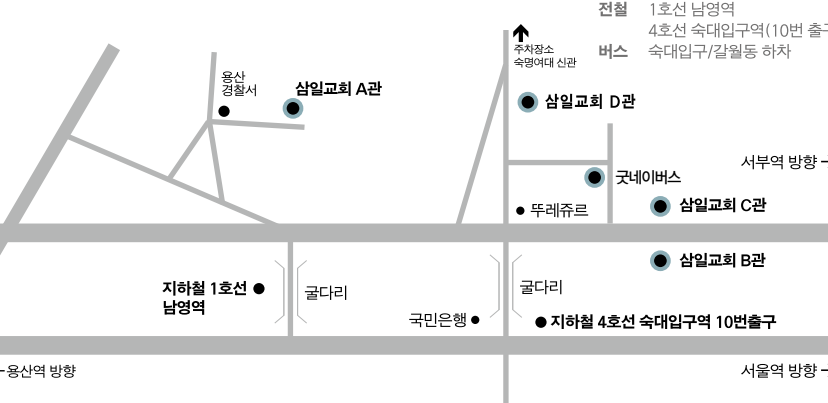
## 집회안내

집회	시간	장소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삼일교회 B관 2층	영아세앗부(1~2세)	1부: 오전 10:30	B관 405호
	2부: 오전 10:30	(2부 영어통역 3층)	영아새싹부(3세)	2부: 오후 1:30	B관 404호
	3부: 정오 12:00	(3부 중국어통역 3층)	유아소망부(4세)	1부: 오전 10:20	B관 703호
	4부: 오후 1:30		유아밀음부(5세)	2부: 오후 1:30	B관 401호
	5부: 오후 3:00	(5부 일본어통역 3층)	유치부(6,7세)	오전 10:10	7층 중예배실
젊은이예배	6부: 오후 4:30		유년1부예배	오전 10:30	굿네이버스3층
	7부: 오후 7:00		유년2부예배	오전 10:30	굿네이버스4층
주일 저녁예배	1부: 오전 11:00		초등부예배	오전 10:30	B관 1층 소예배실
	2부: 오후 7:30	삼일교회 B관 2층	소년부예배	오전 10:30	C관 5층
수요예배	1부: 오전 11: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4층
	2부: 오후 7:30	삼일교회 B관 2층	고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3층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10:00		영어예배	오후 1:30	B관 504호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새가족부	주일 낮 예배직후	C관 1층 새가족부실
	2부: 오전 6:30		리더교육	토 오후 5:00	B관 2층

7월 예배봉사위원	7월 대표 기도 순서			7월 봉헌위원	
	1부	2부	3부	1부	박동선 집사
	7월 1주 박신찬 장로	나원주 장로	김경준 장로	2부	김희석 집사
	7월 2주 임두호 집사	이윤석 집사	남재희 집사	3부	이형우 집사
	7월 3주 장구경 장로	이대규 장로	주병옥 장로	4부	장석면 집사
	7월 4주 박동선 집사	지용운 집사	최승돈 집사	5부	이영규 집사
				저녁예배	박정석 집사

##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Tel 02-711-4328	
C관	씨름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70-4264-9210	Fax 02-711-3126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삼일기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2-8385	



## 섬기는 분들



7.14(화)-18(토) Here am I, Send me. 이사야 6:8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1부: 김광은목사 2부: 이흥우목사 3부: 우윤환목사  
4부: 고석창목사 5부: 전종국목사)

## 본문 하박국 3:1-4

**제목** 하박국강해(4) “놀라운 소문!”

헌신기도 1부: 임두호집사 2부: 이윤석집사 3부: 남재희집사

주일 젊은이예배 설교 이윤준목사  
본문 요한복음 7:25-36  
제목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주일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 황근배목사)  
본문 사무엘하 18:1-15  
제목 사무엘하강해(18) **“달의 물결”**

수요예배      1부 김영운목사  
본문 잠언 4:23  
제목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 하는데...”

2부 우상현목사  
본문 출애굽기 14:10-20  
제목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금요철야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 김성태목사)  
본문 마태복음 7:7-12  
제목 “문을 두드리라”

새벽예배      설교 월: 강병희목사    화: 하근태목사    수: 설임수목사  
                  목: 윤진수목사    금: 이익주목사

# Samil Church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 GBS교안

2015. 7월 둘째주.

**“피로 세운 보증”** (신명기 16:9-12)

## ■ 들어가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합니다(신16:16). 이중 맥추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행2:1)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날 성령강림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기에 신약 성도들에게도 맥추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1.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출23:16) 또는 칠칠절(신16:10)이라 불립니다. 아래의 구절들을 찾아봅시다.

- 1.1. **(관찰)** 맥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그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니까?
- 출23:16a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 )하여 밭에 뿌린 것의 ( )이나라
  - 신16:9-10a 일곱 주를 셀지니 ( )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찰칠절을 지키되

- 1.2. **(관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 신16:10b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 )을 주신 대로 ( )을 해아려 ( )을 드리고

- 1.3. **(나눔)** 살पर्넵 바와 같이 맥추절은, 무교병을 먹으며 급히 광야로 나가야 하는 유월절과는 달리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기적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던 광야에서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로부터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풍성함 또한 광야에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기억하고 지금까지의 일상의 기적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일상은 그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

반면에 만약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맥추절에는 개인적으로 받은 복을 감사하고 기억해야하기도 하지만 고백적인 행동 또한 요구됩니다. 아래 구절들을 통해 살펴봅시다.

- 2.1. **(관찰)** 맥추절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하십니까?
- 산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 )과 ( )와 ( )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 2.2. **(관찰)** 이러한 정신은 추수에 대한 규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 레23:22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            ) 말며 떨어진 것을 (            )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            )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2.3. **(나눔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비참한 상태를 면하지 못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만이 아니라 늘 공동체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이 처한 그 자리에,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감사는 과거가 아닌 오늘의 실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더 큰 즐거움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또는 우리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 함께 기도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베풀실 은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또한 주변의 약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난 자들이 되게 하소서.



